

왕의 예루살렘 입성(눅55)

성경말씀: 눅19:28-44

공생애 요약

예수님의 사역 목적(눅4:18-19), 3년 반,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선포,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요르단 동쪽의 페레아, 데카볼리, 두로와 시돈, 맨 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드디어 여리고 메시아 표적, 바디매오, 나사로(요11),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아는 자들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몰려든다(요11:55). 열망과 기대가 넘친다. 당장 왕국이 임하지 않는다(19:11). 교회 시대가 열린다. 귀인, 왕권, 다시 돌아옴 마나 이야기, 10명 1마나,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준 것, 복음 선포 교회 확장, 1마나로 10마나, 1마나로 5마나, 보상이 다르다. 보상을 잃는 자도 있다. abrabrgl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신실하게 버텨야 한다.

배경

〈왕의 예루살렘 입성〉,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28), 오늘부터 23장까지 마지막 1주일은 예루살렘 이야기 왜 예루살렘인가? 왕의 의미? 어떤 왕?

예루살렘: 다윗의 도시, 왕의 도시(BC 1000년경)

1.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굳게 고정하심(9:51): 왕으로 오셨기에 왕으로 드러나야 함
2.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을 수 없다(눅13:33): 대언자로 오셨기에
3. 이미 자신의 죽음을 세 번이나 예고함(눅18:31-34): 제사장 겸 희생물로 오셨기에(성전)

북동쪽 28킬로미터 떨어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리브 산을 통과해야 한다.

1.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 3킬로미터, 예수님 자주 방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요11)의 고향
2. 벳바게: 베다니 근처의 마을. 올리브 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함, 여리고 베다니 벳바게 예루살렘 사복음서 예수님 행적의 특징: 항상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다.

요19:28 목마르다, 36, 고전15:3-4, 성경 기록대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대언, 대언자, 특히 미래를 말하는 예언의 말씀

사람의 종교에는 예언이 없다: 초림 때에 이루어진 44-48가지 예언

1. 여자의 씨(창3:15), 2. 베들레헬(미5:2), 3. 처녀 탄생(사7:14), 4. 아브라함의 자손(창12:3), 5. 다윗의 자손(삼하7), 6. 요한(사40:3-5), 7. 갈릴리 사람(사9:1-2), 8. 메시아 표적들
- 오늘은 우선 스가랴서의 예언 성취(29-36):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심, 4복음서에 기록됨, 중요 슥9:9, 요12:15-16

1. 주님은 의로우시다: 사람이 죄를 지은 뒤 필요로 하는 것, 의(義), 롬1:16-17, 고후5:17
2. 구원을 소유하신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행4:12),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삼위일체 하나님, 요3:16
3. 겸손하시다: 세상의 왕과 다르다(막10:42-45). 목사, 집사, 인도자, 오래 믿음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신다(빌2:5-6). 그것도 빌린 나귀를 주님은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갔고 어미는 걸어서 감: 창조물의 순종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34), 우리도 그 주인처럼, 나귀처럼 우리를 내어 줄 수 있는가?

4. 이스라엘의 왕(네 왕, 눅19:38), 메시아

백성이 생각하는 호령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즉 섭기는 리더

헤롯의 왕궁, 로마의 건축물 등과 비교하면 볼품이 없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궁, 7500억 원, 연봉 646억 원, 통치의 원칙이 다르다.

우리의 교회 건축: 최소의 비용으로 예배, 교육, 교제 장소, 한국 교회에 귀감이 될 모델 왕국을 고대하던 백성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옷을 갈고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찬양을 부름(38)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요12:13; 눅1:31-33)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주일(요12:13)이라고 부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백성이 찬송하도록 내버려둠

1. 예언 성취(시118:22-23, 25-26), 시113-118은 할렐 시편(유월절)

2. 종교 지도자들 자극. 예언 성취(마26:3-5), 유월절 이후로

그러나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양(요1:29; 고전5:7), 반드시 유월절에 죽어야 함

이전에도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모두 실패(요7:20; 8:20등), 아직 때가 아니다.

백성이 메시아로 인정하자 지도자들은 결국 가롯 유다의 제의를 받고 그분을 죽이게 됨

메시아가 하는 일(38):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눅2:14,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나 메시아를 죽인 이후로 땅에는 갈등, 분열

눅12:49-53, 그분이 오셔야 평화가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의 평화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김(39): 나사렛 목수를 메시라고 하니, 소요 격정

예수님의 말씀(40):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종교인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셨을까? 침례자 요한 눅3:8

하나님의 백성이 안 하면 돌들이 한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친다. 시멘트 벽돌이 한다.

1.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 2.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3.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성장, 4. 신약 교회, 5. 영혼의 자유

예루살렘을 보시며 슬피 우심: 공적으로 두 번째(요11:35)

왕이 울다니, 세상 왕과 전혀 다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1.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무능력을 보시고

2. 자신의 백성의 무지를 보시고

이유: 백성인 지금은 메시아 영접, 그러나 며칠 내로 온 민족이 배척, 십자가 처형, 부활, 승천

40년 유예 기간, 결국 로마의 침입, 143일 동안 포위, 110만 명 살해, 10만 명 포로, 성전 붕괴(44)

이들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로마에서 구해 줄 메시아로만 인식, 나만 생각하고 있음

하나님의 경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셨다: 44절의 '돌아보는 때'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요1:11).

지금 화평을 주러 오셨다(42).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신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을 아는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죄를 피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우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같은 심정으로 계신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돌이켜야 한다.

화평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롬8:3-4).

예수님이 이미 땅을 방문하셨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지한 것은 아닌가?

고후6:1-2,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구원과 성화

결론

1. 예언 성취

2. 겸손한가?

3. 무능력을 아는가?

4. 무지를 아는가?